

에르도안 재선 성공...30년 종신집권 길 열었다

튀르키예 대선 결선투표 끝 승리 권위주의 통치체제 강화 예상 미국·서방 불편...러시아 희색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전만 해도 20년 집권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이번 도전도 이겨내며 자신이 왜 '21세기 술탄'으로 불리는지 증명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재선으로 2003년 첫 집권 이후 2033년까지 최장 30년에 달하는 사실상의 종신집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을 바란 러시아는 안도하게 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 이단아에 필치를 얹어온 미국과 서방은 앞으로 튀르키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해야 할 형편이다.

튀르키예의 권위주의 체제와 비정통적 경제정책도 계속 유지될 예정으로,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난 등 산적한 국내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튀르키예 선거관리위원회인 최고선거위원회(YSK)는 28일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선 결선투표 승리를 공식 발표했다.

YSK 아흐멧 예네리 위원장은 국내외 투표한 99.43%를 개표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52.14%를 얻어 승리했다고 밝혔다.

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울루 대표는 47.86%를 득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투표 개표가 막바지에 달한 이날 오후 8시15분께 이스탄불 거처 앞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앞으로 5년간 튀르키예를 통치할 책임을 다시 맡겨준 모든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취임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8년까지 추가로 5년간 집권하게 됐다.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되면 추가 5년 재임 가능한 헌법에 따라 2033년까지도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경우 2003년 총리로 시작된 그의 집권 기간



대선 결선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이스탄불 크스클르 구역 관저 밖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이번 연임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사실상 종신집권의 길을 열었다. /연합뉴스

은 30년까지도 연장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대선 승리는 선거 직전 예상을 뒤집은 결과다.

이번 대선은 지난해 10월 기준 전년 대비 85%가 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리라와 가치 폭락 등으로 경제가 파탄 직전인 상황에서 치러졌다.

게다가 지난 2월에는 21세기 최악의 재난 중 하나로 꼽히는 대지진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과 부패 문제가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졌다. 선거 때마다 사분오열했던 야당도 이번에는 6개 당이 반(反)에르도안을 기치로 단일후보를 내세웠다.

에르도안 대통령 치하에서 탄압받아온 쿠르드족이나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하는 500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표심 역시 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정권교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자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아깝게 과반에 미달한 49.52%의 득표율로 44.88%의 클르츠다로울루 대표를 따돌렸다.

이번 선거는 올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튀르키예 뿐 아니라 중동과 유럽, 서방과 반서방의 국제질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선으로 튀르키예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권위주의 통치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개헌을 통해 부통령 및 법관 임명권, 의회 해산권, 국가비상사태 선포권까지 막강한 권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했다. 나아가 대대적 숙청과 규제 작업을 통해 언론과 사회 전 분야까지 장악했다.

이렇게 다져온 통치 기반의 위력이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만큼 에르도안 대통령은 현재 체제를 유

지하며 30년 초장기 집권을 본격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물가와 경제난을 초래한 저금리 정책과 중앙은행에 대한 개입 등 비정통적 경제정책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튀르키예를 목표로 한 지역 패권 추구 외교 노선과 함께, 친러시아 노선 및 서방과의 불편한 관계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으로선 나토 내에서 튀르키예의 독자 노선에 따라 난처한 입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러시아로선 튀르키예와 경제협력력을 지속하면서 서방의 제재 충격을 완화하는 등 숨통이 트이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크렘린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승리는 튀르키예 수반으로서 사심 없는 노력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립적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러시아, 키이우 대규모 드론 공습...“F-16 지원 용납 못해”

드론 파편에 최소 2명 사망

러시아가 건립 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퍼부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다.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확전 행위'라고 반발했다.

2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보도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러시아군이 이란산 드론으로 5시간 이상 키이우를

공습했다. 키이우 시 당국에 따르면 솔로스키 지역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추락한 드론 파편에 맞아 숨진 41세 남성을 포함해 2명이 사망하고 최소 3명이 다쳤다.

또 인근 7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시 당국은 설명했다. 작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 러시아군은 키이우에 14차례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규모 면에서 이번이 가장 크다고 우크라이나 측은 전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밤사이 러시아 서부의 브란스크와 서남부 크라스

노다르 등 2곳에서 드론 59대를 발사했으며 키이우와 주요 인프라, 군사시설 등을 타격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발사된 59대 가운데 58대가 격추됐다고 우크라이나 공군 측은 말했다.

이날은 키이우시의 공휴일이자 법정 기념일인 '키이우의 날'이다. 5세기경 세워져 동슬라브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 키이우의 건립을 기념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됐다.

키이우 시 당국은 도시 설립 154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비록 통상적 수준보다 축소된 규모이지만 축제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드론 공습으로 이마저

도 어렵게 됐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F-16 전투기 지원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F-16은 미국 록히드마틴이 생산한 전투기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조종 훈련 계획을 동맹국이 공동 지원하는 방안이 승인됐다.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자국 TV와 인터뷰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 "확실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단계적 확전 행위"라면서 "나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서구인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대적인 공습 속에 시민들을 지킨 자국 방공부대와 응급구조대를 지휘했다. /연합뉴스

美 디폴트 시한 8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매카시 의장 부채 한도 상향 최종 합의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AP 통신은 이날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 간 최종 합의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조율하는 동안 대화를 나눴다.

6월 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표결을 서두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향을 두기로 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中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면 일본 호수에 버려라”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왜 자국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28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 제76차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스스로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왜 국내 호수에 배출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마땅히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는 게 유일한 실행 가능 방안이나"고 반문한 뒤 "이것은 자기 돈을 절약하지만,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대표는 "일본은 오염수가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다에 배출하려는 속셈이 무엇이나"며 "자국의 단기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인류의 공동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엄격한 규탄과 단호한 배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웃 국가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 및 국제기구와 충분히 협상한 뒤 가장 안전하고 온당한 방식으로 오염수를 처리하고 엄격한 국제감독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다고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문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